

서울시·에너지재단, 반지하 1500가구에 집수리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접수 단열 시공·보일러 설치·바닥 교체 등 지원

서울시가 반지하 주거형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약 1500가구에 단열, 방방 등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결합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 900가구 규모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 400가구를 반지하 주택으로 선정한다. 에너지재단은 올해 약 3000가구 이상의 개선사업 지원 대상 중 1100가구를 반지하 주택으로 채운다. 초과 신청 시에도 반지하 가구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수리 사업은 기존 단열 시공, 보일러 설치, 에어컨 설치, 창호 설치, 바닥 교체 공사와 더불어 반지하 가구의 수요가 많은 환풍기 등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원 추가 항목을 기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항목인 도배, 장판, 새시, LED, 싱크대, 타일·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등 13개 항목에 포함해 12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서울시는 상·하반기 자치구별 공고를 통해 3월부터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자격여부를 심사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사회복지과 등 자치구 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에너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그



동안 제작 각 벌여온 집수리 사업을 육 많은 반지하 거주민들에게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더 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촌·연신내·봉천...서울 서북권·서남권 육성 시동

서울 서북권·서남권 육성방안 용역 착수

서울시가 서울 서북권, 서남권 지역중심지에 대한 종합육성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북권, 서남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서울 건축사업의 최상위 근거인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하위 개념으로 2018년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을 동북·서북·서남·동남·도심권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53지구 중심으로 구획했다.

이번에 용역을 의뢰한 지역은 서북권과 서남권의 '지역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들이다. 서북권에서는 신촌, 마포·공덕, 연신내·

불광이, 서남권에서는 목동, 봉천, 사당·이수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강남이 중심인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문화 및 중심기능이 열악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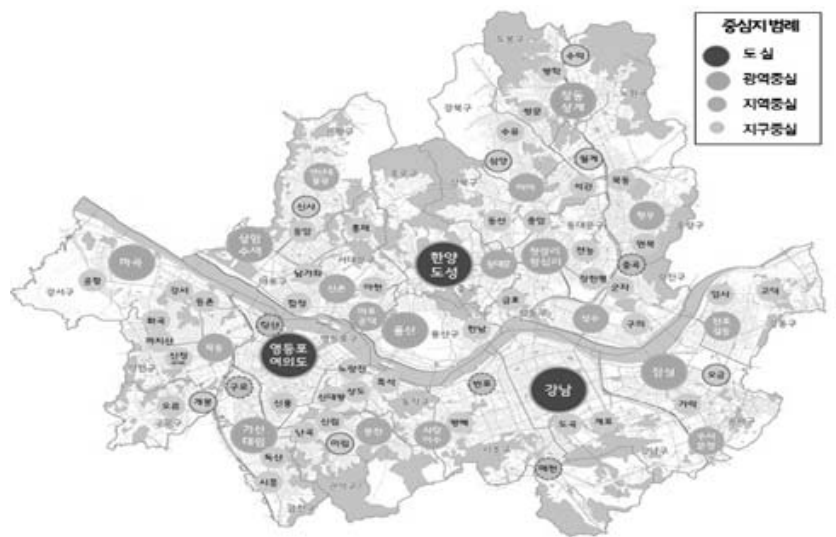
신촌 지역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밀집 지역으로 활성화했지만 최근 상권이 침체된 상태다. 연신내·불광 지역은 지하철 3·6호선을 비롯해, GTX-A가 들어오는 서북권 교통 중심지지만 주변 상업지역의 개발이 저조한 편이다.

목동의 경우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개발 시기가 도래하며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증가해 계획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봉천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중심으로 도로교통 상황이 열악하며 남

부순환도로 이면부 상업지역에 주거용도와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이 혼재돼 있다. 사당·이수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지만 혼잡하고 사당천 복개구간의 경우 침수의 위험도 있다.

서울시는 신촌 주변의 대학 잠재력을 활용해 문화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신내 인근은 상업·문화 기능을 집적하면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마포·공덕은 서북권 업무중심지로 키울 방침이다.

또 목동은 목동종합운동장, 유수지 인근에 복합문화공간을 유도하고 봉천 지역은 관악구청,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복합업무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당은 수도권 남부지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 복합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2년 동안 6개 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중심지 육성 관련 사례조사와 관련 계획·사업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지역 중심별 종합육성계획과 이를 위한 실행방안 역시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

정답 표시 시험지 시험본 뒤 인천 모고교 적발

정답이 표시된 시험지에 시험을 치르고도 몰래 재시험을 치르는 등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정하게 추진한 인천 지역 고등학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인천시교육청 2019년도 공시립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지역 총 5개 고교, 69명을 적발했다.

A고교는 지난 2017학년도 3학년 자연통합수학교과 시험 도중, 15문항에 정답이 표시된 인쇄된 문제지로 시험이 치른 뒤 절차대로 교과협의회를 열지 않고 재시험을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6~2018학년도 지필평가(정기고사)에서 미적분Ⅱ 포함 총 8개 교과의 문항 출제 오류를 '복수 정답', '모두 정답' 처리해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소홀 등 이유로 A고교 교직원 등 관계자 12명에 대해 '주의'를 4명에 대해서 '주의요구' 처분했다.

B고교는 2017년 석면 교체 및 텍스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중 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 물품을 허위 청구해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했다.

제주, 고양이 동물등록 수수료 2만원 면제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케이캣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묘 관련 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펫사료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고양이 사료와 간식, 모래, 가구 등 다양한 반려묘 관련 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도민이 동물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이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11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이식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와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등록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해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되고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도내 고양이 동물등록은 616마리(제주시 542마리, 서귀포시 74마리)다.

이는 도내 고양이 사육두수 3만4595마리(2018년 제주도 자체 연구용역 기준)의 1.8% 수준이다.



갑자기 내린 폭설 제주 산지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17일 오후 한라산 어리목 일대에 설치류 한 마리가 뛰놀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도내 지점별 적설량을 보면 한라산 진달래밭 55.5cm, 뽕재 20.8cm, 어리목 21.1cm 등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전북도, 48개 '스마트 가든' 조성

전북도는 올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내 48개 다중이용시설에 미니 실내정원 '스마트 가든'을 조성한다. 사진은 큐브형 스마트가든(전북도 제공) 2020.2.18 / © 뉴스1

전북도는 18일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미니 실내정원 '스마트 가든'을 도내 48개 다중이용시설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기정화 기능이 우수한 식물을 활용해 자동화 기술과 접목한 실내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 14억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스마트 가든은 가로·세로 각 4m에 높이 2.2m인 16㎡ 규모로 3~4명이 들어가 볼 수 있는 '큐브형'과 실내 벽면에 식물, 꽃 식재와 녹화를 하는 '벽면형'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이 시설은 올 한해 전국 336개소에 설치될 계획이며 전북 지역에는 전주와 정읍, 진안, 장수 등에 48개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향후 사업효과 및 도민 반응 등을 파악해 내년부터 점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를 숲과 정원 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중 추돌 사고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통제...최소 2주



17일 낮 12시23분께 전북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 안에서 탱크로리와 승용차 등 차량 30여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다중 추돌 사고로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의 상·하행선(북남원 IC-오수 IC)이 통제됐다.

18일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다중 추돌사고로 인해 사매 2터널의 조명, 구조물, 노면이 파손됐을 것으로 보고 2주간 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과 유류품 등이 흩어져 있어 정리가 필요하며 통행 재개를 위해 터널 내부에 대한 안전점검도 할 계획이다"며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안전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방향 터널과 노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현장 합동감사가 진행된 후 결과를 받아봐야 정확한 통행제한 기간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울주군,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

울산 울주군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남녀 통합당직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주군 당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나뉘는데 일직은 여자 공무원, 숙직은 남자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올해 2월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 469명(남자 56%, 여자 44%) 중 70%가 여성공무원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여자 공무원 비율이 54%까지 늘고 당직 근무에 성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근무조건인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통합당직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1